“얼음 불탑으로 지구온난화에 경종을”

인도 라다크 조각가들, 잔스카르 계곡에 얼음으로 탑 조성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만년설이 녹고 있는 인도 히말라야의 라다크(Ladakh) 잔스카르(Zanskar)계곡에 얼음으로 만든 불탑이 조성 됐다. 평균 해발이 4,000m가 넘는 라다크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100mm를 넘지 않아 생활용수는 물론, 80%가 넘는 농업인들이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은 물을 끌어와 사용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생존에 절대 필수적인 강설량이 줄어들고 있다. 라다크 지역의 언론인 니베디타 칸데카르(Nivedita Khandekar)는 “인도기상청이 측정한 강설량에 따르면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라다크의 수도인 레(Leh)의 평균강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불규칙한 강수량과 기온이 올라가자 라다크인들 사이에선 눈이 많이 녹는 봄과 여름에 물을 길어 저장하는 것이 점점 표준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라다크의 토목기술자이자 교육가인 체왕 노르펠(Chewang Norphel)과 소남 왕축(Sonam Wangchuk)은 인공빙하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는 새로운 해결법을 찾아 실행했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강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흘러가버리는 물들을 다시 얼려서 재활용 하는 것이다.

먼저 말라 죽은 나무덤불들을 모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모아 쌓고, 강에서 물을 끌어와 뿌리기를 반복하면 물이 얼어붙으면서 약 40m의 얼음산이 생긴다. 이 얼음산들은 평균 1억 6천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얼음으로 탑을 조성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구온난화가 해결되지 않고, 최근 이상기후들이 발생하면서 세 명의 젊은 라다크 조각가들이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자연재해들이 생겨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인공빙하 프로젝트와 함께 얼음으로 불탑을 조성하기를 발원했다.

전통적으로 라다크의 모든 마을에는 입구에 하얀 돌과 흙으로 불탑을 세운다. 베스트셀러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이 조형물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연기법을 상징한다. 모든 삶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 되어 있으며,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각각의 개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탑 조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1 완성된 얼음탑(쟝춥최텐). 2 얼음불탑을 조성한 작가들. 앉아있는 인물 왼쪽부터 체링 규르메, 치메 도르제, 땐진 캉사르. 3 탑을 조성하고 있는 작가들.

체링 규르메(Tsering Gurmet)를 리더로, 체메 도르제(Chemet Dorjay)와 텐진 캉사르(Tenzin Khangsar)로 구성된 조각팀은 모두 20대 중후반의 젊은 조각가들로 인공빙하 프로젝트의 책임자 소남 왕축과 상의 끝에 인공빙하의 안에 방을 만들고 3m높이의 얼음탑을 조성했다. 조성하기로 한 탑은 쟝춥최텐(Jangchub Choeten; 菩提塔)으로 지난 1월 조성이 시작됐다.

얼음으로 탑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지역여론은 좋지 않았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상징인 탑을 전통적인 의식과 절차 없이 얼음이라는 소재로 만든 다는 것과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했다. 조각 팀의 리더 규르메는 “먼저 모든 공동체를 위한 작품이라고 설득해야 했다. 탑이 완성되고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탑이 여름에 녹아 다시 강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 미술작품은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얼음불탑을 조성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조각가들과 인공빙하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 갈등은 쉽게 해결되었다. 인공 빙하 속에 만들어진 방안에서 조각 팀은 영하 12도를 견디며 2월 첫 주에 탑을 완성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소남 왕축은“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빙하와 만년설을 보존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미래에는 중국의 얼음축제와 같은 컨텐츠로도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얼음으로 작업을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또 이 얼음들이 다시 녹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구온난화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린 큰 재난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얼음탑과 인공빙하들을 보기 위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보통 여름에 집중되는 라다크 관광을 동계에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겨울에는 라다크의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공빙하와 얼음탑을 만들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선택과 결단 위한 1분의 깨달음

망설이는 현대인을 위해…



일상에서 선택과 결단으로 망설이는 현대인들을 위해 짧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선택지를 일러주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돼 화제다. 일본 인터넷 매체 ‘니코니코 뉴스’는 3월 22일 도쿄의 고찰 미츠조인(密藏院)의 주지 나토리 호겐(名取芳彦, 60) 스님이 발간한 책 〈1분 깨달음, 사진〉을 특집 보도했다.

지금까지 6권의 스테디셀러를 출간한 호겐 스님은 “나 역시 30대 초반에는 무엇을 할지 헤매다가 포기하고 방치했던 경험이 많다. 그런 불쾌한 경험을 되풀이 하는 인생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며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호겐스님은 “어째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또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말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찾는 것, 이해와 받아들임을 통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은 2,500년간 이어져온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호겐스님은 역설했다. “이 책은 경전에 나오는 경구로 가르치기 보단, 일상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다”고 말한 스님은 각 장이 끝날 때 마다 1분 깨달음의 명상법을 소개한다.

먼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것이 좋아’라는 마음이 아닌 ‘이것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한다. 스님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분 명상을 제안했다.

1.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본다.

2. ‘이것이 좋아’가 아닌 ‘이것도 좋아’라는 선택지를 찾는다.

3. ‘이것도 좋아’라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한다.

이렇게 명상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서 결단력에 대한 1분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항상 ‘고집’이라는 것에 묶여있다. 당장 자연이 사계절로 변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고집에 대한 1분 명상도 제안한다.

1.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을 떠올린다.

2. 고집을 부려 생겨나는 불편함과 부자연스러운 것을 바라본다.

3. 고집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이미지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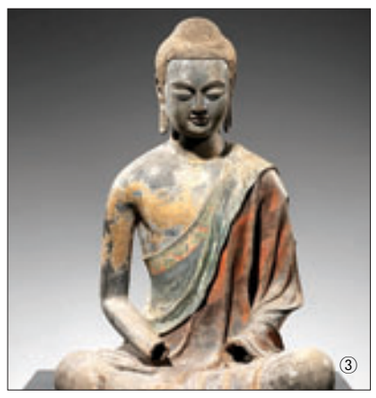
스님은 이렇게 경전의 경구나 현학적인 예를 들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진정한 활용 방안이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워싱턴 D.C.서 만나는 부처님 숨결







워싱턴 D.C. ‘아서 M. 새클러 갤러리’서 진행 중인 옻칠불상 특별전시회가 현지서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어 화제다.

‘워싱턴 포스트’는 3월 8일 ‘아서 M. 새클러 갤러리’의 ‘옻칠불상의 비밀(Secrets of the Lacquer Buddha)' 특별 전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6,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옻칠불상 3개가 전시되며, 이 전시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세 불상은 각각 워싱턴의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볼티모어의 월터 아트 뮤지엄(Walters Art Museum),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빌려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세 미술관이 아서 M. 새클러 갤러리에게 불상을 빌려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워싱턴 D.C.의 현지 사람들은 “워싱턴 D.C.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전시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리어갤러리에서 온 불상〈사진①〉은 중국 당나라 시절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금과 안료로 채색됐다. 월터 아트 뮤지엄의 불상〈사진②〉은 중국 수나라 시절의 불상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불상〈사진③〉은 당나라 시절의 불상 모습이다. 특히 이 세 개의 불상들은 보석, 금, 향나무, 경전 두루마리와 같은 복장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진형 기자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